

# “檢 수사 후” vs “내주 초 협상” 여야 ‘대장동 특검’ 기사움

## 부산저축은 포함 놓고 줄다리기 고발사주 묶어 쌍특검 협상 논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을 둘러싸고 대답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밝히며 특검 도입에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어 협조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마치고까지는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 필요시 연장 수사기간 30일 등 최장 110일이 주어진다.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정확히 110일이 남은 만큼, 이론적으로는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한 뒤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전에 끝낼 수도 있다. 과거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종료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의 대상과 실제 특검 지명 과정 등 각론을 둘러싼 양측의 협상 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화해 특검 협상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협상 개시

여부를 두고는 양측 입장이 벌써 엇갈린다.

민주당은 이제 막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며 벌써 협상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 후보가 비록 전날 ‘검찰 수사 미진 시’라는 특검 조건을 철회했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단에서 보낸 공지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여야 특검 협상 들입은 오보”라며 “관련한 논의와 구체적인 계획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주 초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장동 사건 관련 모든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특검법 통과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제가 민주당에 만나자고 했는데,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한다”며 “후보는 통 크게 양보하고 당은 엉뚱한 소리로 뒷다리 거는 양동작전,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로 기소가 예정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를 계기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양측이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동상이몽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논의하는 이유가 ‘투명한 진상 규명’에 있는 만큼 이른바 ‘50억 클럽’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두고도 줄다리가 예상된다.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등을 묶어 특검 수사를 하자는 이른바 ‘쌍특검’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실시하되, 특검의 추천권은 양당이 교차해 행사하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교차 특검에 대해서는 자칫 현재의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면 다시금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가 진심으로 조건 없는 특검을 말하더라도 당의 입장에서는 윤 후보에 대한 특검을 조건으로 내걸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실제로 가동된다면 쌍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특검 구성과 수사 기간 등을 놓고 한없이 이전투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민주, ‘회식비 대리 결제’ 윤석열 고발

## 부산저축은 부실수사 의혹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잇달아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른바 ‘민어회 폭탄주 회식’ 비용을 제3자에게 계산하도록 한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15조에 명시된 ‘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윤 후보 대선 회식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래 전 포스코사회 의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0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목포로 이동해 한 횡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 10여명과 지역 특산 민어회로 만찬을 했는데, 민주당은 당시 이전 의장이 윤 후보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용빈 당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원이 훌쩍 넘는 만찬 비용은 전액 이전 의장이 결제했고 윤 후보는 1원 한 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당시 만찬 영상

과 카드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특수직무유기, 사후수회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태스크포스(TF)인 김병욱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건의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대장동 사건의 숨은 몸통 조모씨가 난다”며 “조씨가 2015년 알선수재 배임 혐의로 구속돼 처벌을 받는데 그전인 2011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을 시기 당시 윤석열 수사과정은 입건조차 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이었던 전 중수부장 박영수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조우형과 박영수 변호사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장동 의혹 핵심인 김만배씨의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주택을 매수한 것과 관련, “조우형은 김만배를 통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며 “윤 후보가 조우형에 대한 바꾸기 수사를 한 데에 대한 대가로서 사후수회죄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안철수, 대장동·고발사주 ‘쌍특검’ 제안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후보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대장동 개발 비리와 고발사주 의혹 규명을 위한 ‘쌍특검’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즉시 두 개의 특검법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연말 전에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착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신속한 특검법 통과를 위해 윤 후보를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검 추천은 민주당에 위임하고, 이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특검법 제정과 특검 추천은 국민의힘에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해당 특검법안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맡겨주면 된다”며 “특검 추천에서도 상호 비토권을 보장하고 비토가 있다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다시 추천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소속 정당은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시간을 질질 끄는 이중 플레이”라며 “후보는 착한 역, 정당은 나쁜 역을 맡는 전형적인 ‘굿캅 배드캅’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양당이 협상을 시작하면 누가 시간을 끄는지, 누가 진짜 죄인인지 곧 밝혀질 것”이라며 시간을 끄는 자가 죄인”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양당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채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투표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며 “저의 제안을 거부하는 정당이 오히려 범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에 관련 협조 요청을 드렸고, 필요하다면 기독교당 대선 후보를 찾아가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홍준표, ‘김종인·김한길·김병준’尹 선대위 합류에 “잡탕밥”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21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란히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것을 두고 “잡탕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낙선한 홍 의원은 최근 출범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이른바 ‘3김

(金)’을 겨냥해 ‘이런 늑다리 지도부를 2030 젊은 세대가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친한가’라는 질문에 “생각이 비슷하다”고 답하면서 윤 후보 관련 비판 발언은 자제해달라는 요청에는 “알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이재명, 부인과 충청 민생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전·충남북 방문 셋째 날인 21일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현충원을 찾아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다. 김씨는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했다.

이 후보 부부는 충북 보은의 판동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상대로 기본소득을 쉽게 설명해주는 자리

도 이어갔다.

이후 충북 청주시 육거리 종합시장을 찾아 시장 민심을 확인했다. 충북은 김씨의 지역적 뿌리이, 이 후보 장인의 고향이다.

이 후보는 오후 충북 괴산군으로 이동, 청년 농부들이 모여 만든 카페에서 간담회를 하고 2박3일 간의 대전·충남북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 010-6670-9800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